“태허 조사 혜안 이어받아 AI시대 전법 선도”



관음종은 10월 24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참석 내외빈들의 기념촬영.

관음종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

10월 24일 종로 탑골공원서 봉행
2년여 노상설법 태허 조사 추모
홍파 대종사 법어…“미래 선도”
법명 스님 ‘다문화 종책’ 강조해
새기는회 대표도 감사인사 전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모 산달마 푼다리카 수드라.” 관음종 개산조 태허 흥선 조사의 ‘법화삼매 관법대비주’가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울려 퍼졌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2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 노상에서 가르침을 전한 태허 조사의 유훈을 되새기며 AI시대를 선도할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관음종은 10월 24일 탑골공원에서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겨레와 함께한 60년, 인류와 함께할 60년’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관음종 제9세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법명 스님, 원로원장 법륜 스님, 부원장 도각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자리했으며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보광 대종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 등 주요 종단 지도자와 해외불교 지도자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법회 참석 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법회에는 해외불교 지도자 스님들도 참석했다.

또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등 불교언론사 대표들이 함께했다.

종정 홍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개산조 태허 조사의 유훈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미래를 혁신하는 종단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태허 조사께서는 법화 행자들이 모인 관음 종문(宗門)과 중생들에게 바른 길[正道]를 제시하고 친히 모범이 되셨다”고 술회한 홍파 스님은 “AI시대에 변화를 알아차리는 지혜의 눈[慧眼]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혁신적 노력은 AI시대 관음종이 찾아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뒤따르기보다는 반 발짝이라도 앞서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자세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대회사에서 향후 주요 종책으로 다문화·이주노동자 관련 사업들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법명 스님은 “관음종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고 눈이 되고자 한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서 “이 땅에서 누구라도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자리매김하는 데 관음종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내외빈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번 창종 60주년은 관음종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종단협 회장)은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번 기념법회를 통해 태허 조사의 창종 대의가 새롭게 기려져 우리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 희망을 불어넣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관음종과 함께 조세이탄광수몰사고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발굴 및 송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노우에 요코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회 공동대표도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노우에 대표는 “관음종은 일본 조세이탄광 비극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재를 현지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는 한국 유족회에게 큰 격려가 됐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관음종은 거리설법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무료 공양권도 선물했다.

관음종 60년 약사

태허 조사 전한 보살행 한국 넘어 세계로 확대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은 개산조 태허 흥선 조사로부터 시작된다.

태허 조사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인 1956년 서울에서 대승불교법화회, 정각회 등 법화계 수행모임을 조직·규합하고 1957년 3월 ‘일승불교 현정회’를 창립해 회장으로 취임했다. 일승불교 현정회는 〈법화경〉의 보살 실천사상을 종지와 종풍으로 했으며, 관음종의 모태가 됐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진행된 태허 조사의 서울 탑골공원 거리설법은 전법과 창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 사건이 됐다. 태허 조사는 삿갓을 쓰고 다니며 “나모 산달마 푼다리카 수드라” 대비주(大悲呪)로 〈묘법연화경〉을 염송하며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탁발 정신을 되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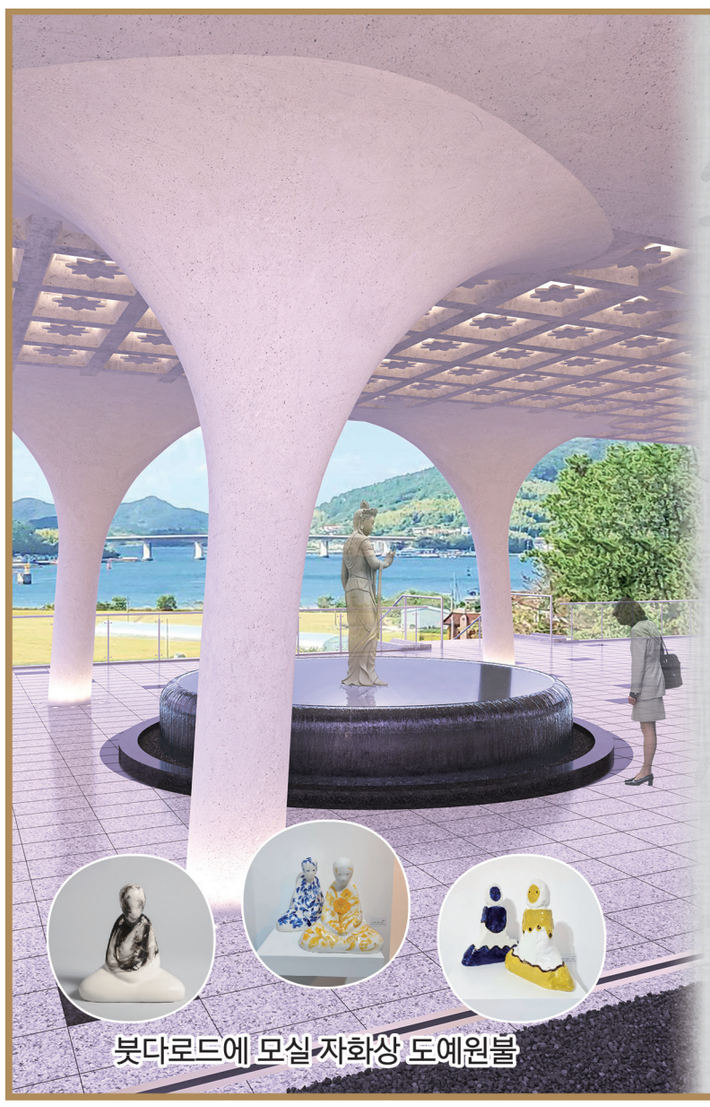
이후 태허 조사는 1965년 12월 대한불교불입종(관음종)을 공식 창종하고 낙산묘각사에서 1세 종정으로 추대됐다. 1979년 음력 6월 24일(7월 17일)에 태허 조사가 열반한 뒤, 같은 해 11월에 2세 종정으로 추대된 백상 경조 선사는 3세 종정까지 역임하면서 종단의 기틀을 닦고 위상을 갖췄다.

1988년 1월 15일에는 개산조의 스승인 경운 조사의 손제자 철운 종현(1906~1989) 선사가 4세 종정에 추대됐다. 종현 선사는 1988년 5월 28일에 (재)대한불교관음종으로 종단 이름을 바꾸면서 도약의 위상을 마련했다. 그해 10월에는 지역의 일부 사찰이 관음종과 분종(分宗)하는 일이 발생하며 종정 체제의 종단 운영을 총무원장 중심의 종무행정 체계로 개편했다. 1979년 10월 대한불교불입종 교정원장에 취임한 홍파 스님은 1988년 10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겸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돼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

1995년 10월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에 피선된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종단의 국내외 교류와 연대를 도모했다. 1996년 3월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이사장에 선출되는 등 종단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였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중일불교문화우호교류회의 수석대표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8년 7월 10일에 국난극복 및 생전예수재 영산참회 대법회 등을 종단 지속화 사업으로 추진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종단은 안정과 정착기를 걷고 있다. 1997년 2월 화재로 그간 종단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총본산 낙산묘각사의 복원불사가 2003년 6월 7일에 낙성 완료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017년 2월부터 일본 조세이탄광 희생자 위령재를 주관하고 있는 관음종은 올해 5월 24일에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제8차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올해 창종 60돌을 맞아 한일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기원하는 관음종은 조세이탄광 유골 발굴과 더불어 원만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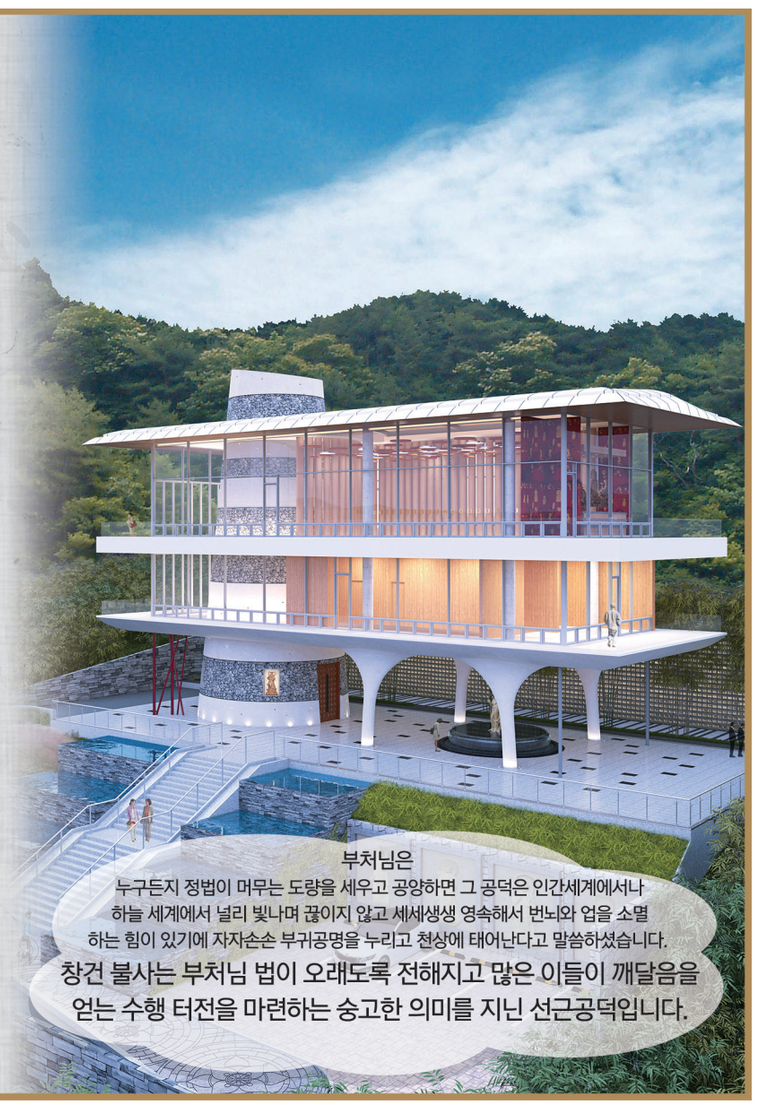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뷰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
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